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2018 아쿠아페스티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쿠아페스티벌 '인산인해'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서 5일까지 팡파르… 행사 첫 날 2100여명 운집

"물놀이도 하면서 공연까지 보게 되니 행복함이 두 배랍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2018 아쿠아페스티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이 무대 앞에 마련된 물놀이장에 그늘막이 설치되고, 부모들을 위한 휴식공간에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임실군에 따르면 아쿠아페스티벌이 열린 첫날인 1일에만 2,1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주말을 기점으로 축제가 끝나는 5일까지 작년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에어바운스 풀장을 뒤엎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시원한 물놀이'를 선사하고 있다.

여기에 풀장 바로 앞에 메인무대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인형극과 난타공연, 마술공연, 버블공연, 풍선아트, 서커스 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휴가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쿠아페스티벌에 참여한 김모(40·전주시)씨는 "다른 야외풀장과는 다르게 물놀이를 하면서 공연까지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놀 때 부모들도 심심하지 않고, 그늘진 휴식공간도 있어서 내년에도 와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일 2회 행사장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별 이벤트로, 임실N치즈체험을 할 인된 가격에 할 수 있는 '임실N치즈체험 빅 이벤트'까지 마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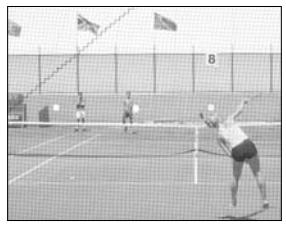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5곳에서 스탬프를 찍고 전북투어패스카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첫날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작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그런지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내년엔 올해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더욱 발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스포츠도시 1번지 '이름값'

내달까지 7개 전국대회 개최 확정… 마케팅 성과 탁월



순창군이 8월과 9월 7개의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를 확정해 스포츠마케팅 저력을 과시했다.

8월 개최가 확정된 대회는 '2018 KETF 국제주니어(U-12)테니스선수권대회', '2018 추계 전국대학정구연맹전 및 국제대학정구대회', '제3회 안중근 평화재단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 '2018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2018 추계 한국실업정구연맹전', '2018 전국 어버이 정구대회', '제2회 순창 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7개 대회다.

우선 '2018 KETF 국제주니어(U-12)테니스선수권대회'는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이 주최·주관해 오는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열린다.

1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주니어(U-12)테니스대회로 개인복식, 개인단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500여명의 선수·임원·심판들이 참가하며 많은 학부모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또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3회 안중근 평화재단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가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2018 추계 전국대학정구연맹전 및 국제대학정구대회'에는 5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도 9월 3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열리는 '2018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2018 추계 한국실업정구연맹전'도 눈길을 끄는 대회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2018 전국 어버이 정구대회도 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제2회 순창 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5일간 9개 구장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대회로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면단위 골목상권에도 훈풍이 기대되는 대회로 주목 받고 있다.

군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효과도 크지만 팔덕 보조구장 완공을 대비한 전지훈련단를 유치 전략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 체육관계자는 "34일간 순창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순창을 찾아 골목상권까지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대회를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휴일 청결지킴이 호평

남원시 환경과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일에도 거리를 청소하는 '휴일청결지킴이'들로 인해 청소미화원들이 쉬는 휴일에도 마치 평일처럼 깔끔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휴일청결지킴이는 모두 8명(남자 3, 여자 5명)으로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일자리 3.0사업으로 추진했던 비슷한 사업을 되살린 것이다.

류장기 남원시 환경과장은 "휴일청결지킴이 전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보람 있게 근무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섬진강 토종어류 150만미 방류

임실군은 지난 1일 섬진강의 상류인 옥정호 일원에서 섬진강의 수 생태계 보호을 위해 붕어 5만미와 다슬기 50kg의 종패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류한 치어는 전북민물고기시험장에서 제공받았으며 올해에만 붕어, 다슬기, 참게 등 토종어류 150만미 치어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행사를 계기로 섬진강 상류의 수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 다슬기가 호소 및 하천바닥의 폐사체 등 유기물을 제거해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도 토종어류 방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섬진강의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 속도

남원시, 사매일반산단 조성사업 순항… 2020년 완공 목표 978억원 투자

남원시가 사매면 월평리 산37-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폭염속에서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최초로 총 978억원(국비 338, 시비 640)의 사업비를 투자해 23만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 금속, 음료, 식료품, 전자, 전기장비, 자동차부품 등 45개 업체를 유치해 남원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남원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9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207억원(국비 35억원, 시비는 172억원)을 투자해 조기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5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관련 행정절차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90%이상을 마무리했고 전체 공정률은 35%이며,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도 병행해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전북 동부권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으며, 조성이 완료고 본격 가동되면 1조원의 매출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및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단지 내 기업체 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연간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고용창출, 인구 유입,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등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 현장중심 의정 '구슬땀'

제8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안전경제위원회는 절정에 달한 폭염도 뒤로하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나섰다.

우선 2016년 4월 개관해 계절별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가장 먼저 방문한 위원회는 현재 열리고 있는 곤충특별전과 물놀이터를 살펴보며 현황을 살폈다.

이후 지리산 허브밸리, 화장품산업지원센터, 흥부골 자연휴양림, 남원일반산업단지, 화물공영차고지, 도로관리사무소,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요천생태습지공원 등 10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과 운영현황을 살폈다.

또한 위원회는 방문한 주요사업장 외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현장과 주민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도 찾을 예정으로 9월 정례회 이전 답사를 종료해 국가예산확보 방안모색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같이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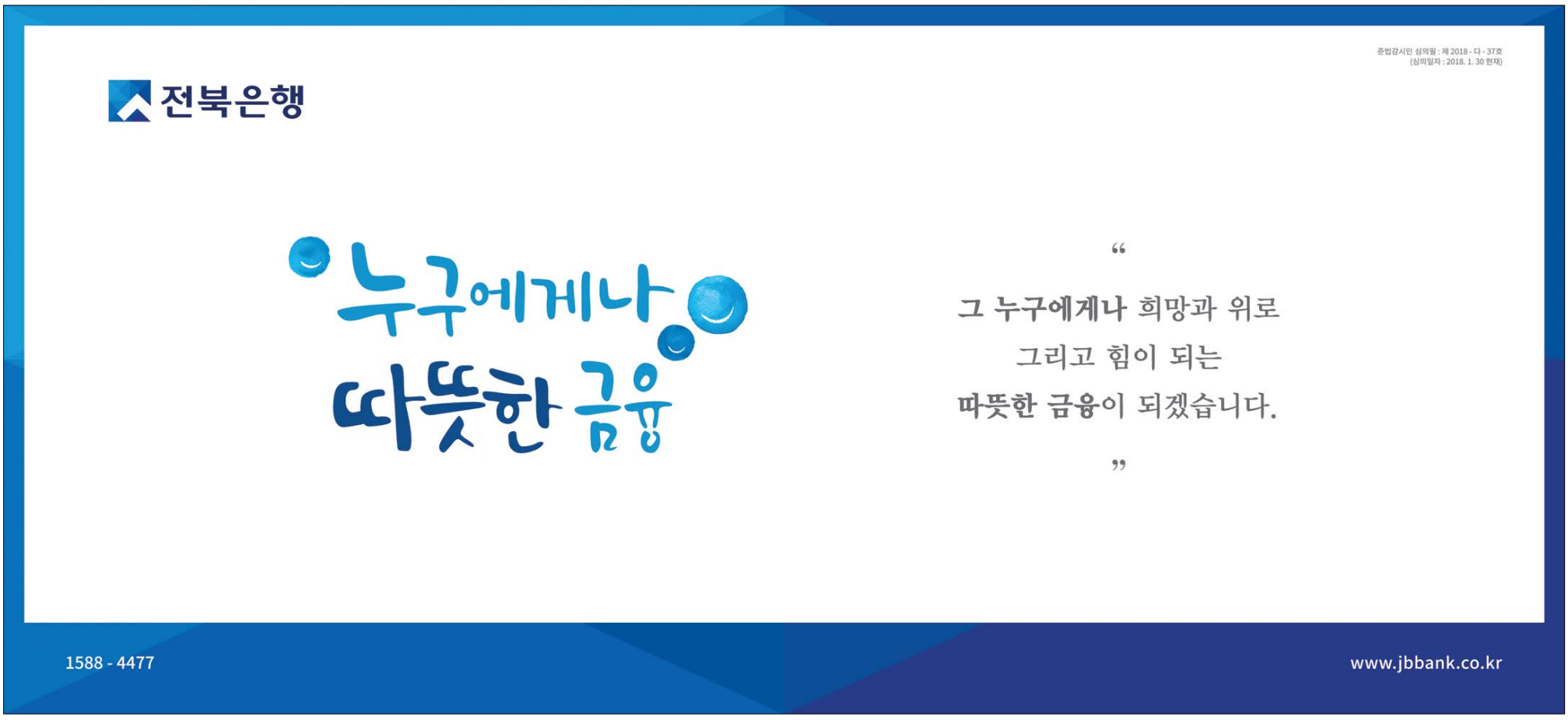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병행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찾아 시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무더위쉼터 25도 유지키로

임실읍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출된 어르신 및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냉방기를 가동, 상시 25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실읍은 지난달 31일 두곡 경로당 등 관내 경로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에어컨 가동 상황 및 냉방 확인,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전달했다.

김학성 읍장은 "마을 현장을 찾아보니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의 상황에서 연로한 어르신이 생강 밭에 물을 주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도 있었다"며 "경로당을 상시 25도로 유지함으로써 무더위 쉼터를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